

어느 결핵환자 부부의 희망

글 김수경(순천기독결핵재활원 전도사)

김어 가는 가을의 스산함이 바람과 함께 달려와 산책로를 온통 나뭇잎 울단으로 덮어 버렸다.

오후의 햇살이 험겨운 듯 고개를 내밀어 차가운 바람을 막아 줄 때쯤 한 손에 조그마한 휴대 의자를 든 남자와 그 뒤를 험겨운 듯 따르는 여자의 모습이 사뭇 이채로운 모습으로 커다란 꿀밤 나무 아래 머무른다.

힘겹게 걸어가는 모습보단 어찌면 험겨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인지 남자의 모습엔 너무나 큰 생의 무게가 걸려있는 것처럼 한없이 힘들게만 보인다.

부부로 함께 하는 것이 생의 기쁨이라 말한다면 그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고 가야할 생의 무게 또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?

아내가 결핵에 걸려 이제는 스스로의 몸 하나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 옆을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하는 수발의 생활이 벌써 얼마이던가.

그래도 늘 미소를 지으며 조금이라도 아내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애를 쓰

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과 함께 그래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묘한 갈등의 느낌을 갖게 한다.

약보다 강한 사랑의 기적을 믿으며

늘 느끼는 것이지만 왜 결핵은 처음 치료에서부터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스친다. 이들에게도 이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버렸기에…….

미현 씨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벌써 온몸에 깊이 사려진 결핵의 증상은 활동성과 생활의 의지를 모두 사라지게 할 정도로 깊어 있었다.

이제는 어떠한 약을 써도 그 약의 효능이 듣지를 않는 이른바 내성의 몸이 되어 버린 것이다. 하루하루 몸의 증상들은 심해져가고 결국 자신의 몸 하나조차 추스를 수 없게 되자 남편이 함께 생활하며 병수발을 하게 된 것이다.

결핵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는, 그래서 가장

가까운 사람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해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지만, 이처럼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는 모습은 참 드문 일이다.

아침과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때론 차로 맛있는 것을 먹여주려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미현 씨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가족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.

때론 약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의 기적이라 하지 않는가?

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은 결국 몸의 뿌리깊은 병을 이겨내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!

‘그래도 행복하시네요’ 라고 말하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. 그 미소 속에 부부가 함께 하는 지금이 그래도 혼자일 때보다는 조금은 덜 외로운,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.

이제는 결핵환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매년 발표되는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. 그러나 숫자 뒤에 가려진 만성환자들의 어려움은 누구도 보려하지 않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.

결핵은 초기에 약만 잘 먹고 충분한 치

료를 안정적으로 하면 잘 치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. 그러나 안정적 치료를 끝까지 하지 못했을 때 결핵은 평생을 지고 가야할 힘겨운 고통의 짐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.

그러다 보니 미현 씨처럼 완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루 하루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 심각함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.

만성 결핵약도 이미 내성이 와서 복용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몸의 기관들은 합병증으로 망가져서 또 다른 약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이들의 이 아픔이.....

햇살이 서산에 걸려 길게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 질 때 소리 없이 일어서는 아내의 뒤로 살며시 다가가 의자를 집어들고 휘청거리는 아내의 모습 뒤로 말없이 동행하는 부부의 모습.

그들의 뒤로 질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어둠만큼이나 생은 버거운 짐 같지만, 이들의 삶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함께 하는 동안이라도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면..... ♪